『기독교사회윤리』 제34집
(2016) 11~39

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

김희수(한신대학교 외래교수)

I. 서론

II. 한국 내 종교 기관의 사회참여 활동

III. 공공신학의 주요주제: 더크 스미트, 라인홀드 니버, 맥스 스택하우스, 스탠리 하우어와스

IV.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

V. 결론: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의식 재인식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안

DOI: http://dx.doi.org/10.21050/CSE.34.01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7039620)

www.kci.go.kr

• ABSTRACT •

The Public Theological Basis of H. Richard Niebuhr's Theology and Ethics

Kim, Heesoo (Han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H. Richard Niebuhr's theology and ethics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theology, as this article does not only try to find out arguments on the identity,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 church, but it also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gression of public theological discourses in Korea for the recovery of Korean Protestant Church's consciousness of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Korean Protestant churches have to recover the sense of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reform the church crisis as well as to establish justice and peace in Korean society. For this,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core issues of public theology offered by Dirk J. Smit, Reinhold Niebuhr, Max L. Stackhouse, and Stanley Hauerwas. Besid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ublic theological basis of H. Richard Niebuhr's theology and ethics. Lastly, depending on these studies, this article offers theological and ethical guidelines for the recovery of the consciousness of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Key words: H. Richard Niebuhr, Public Theology, Social Justice, Social Responsibility, Responsible Ethics, and Social Solidarity

www.kci.go.kr

I. 서 론

본 연구는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에 대해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의 신학과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를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국내 공공신학 담론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 개신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회복 및 실천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김회권은 한국개신교회가 "목회 세습, 재정 비리, 목회자의 윤리도덕적 일탈, 무리한 예배당 신축과 확장 공사, 그리고 목회자의 정치적 수구 세력화"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1] 김희수는 한국개신교회가 기복신앙, 물질주의와 숫자적 성장 경쟁, 선지자적 소명 기피, 교회 내적 행사 치중 등으로 인해 "교회 밖의 이웃과 사회를 보살피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되었다고 한다.[2] 문시영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이 시민적 가치의 핵심으로 급부상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개신교회는 "시민의 눈에 도무지 공공성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집단"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한다.[3] 이들은 한국개신교회가 전도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역성장 현상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개신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하고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회복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사회 전 분야에 공

1) 김회권, [복음과 상황 269호 커버스토리 알고 보면 세속적인 목회자의 욕망] 2013년 4월 6일. http://cafe.daum.net/pray4sarang/KZeT/2527?q=%BB%E7% B6%FB%C0%C7%B1%B3%C8%B8

2) 김희수, 『기독교사회윤리』(서울: 동문선, 2011), 77.

3) 문시영,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208.

www.kci.go.kr

공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만 한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정치 · 경제정의 실현, 이념대립 해소, 장애인과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 등 풀어야하는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군사 독재시기처럼 극단적인 투쟁을 요하는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므로, 필자는 교회와 신학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접근방법은 투쟁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투쟁적인 신학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학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며, 공공신학이 그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세대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등을 필두로 하여 국내 신학계 일각에 공공신학에 대한 담론이 시작된 것은 매우 다행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 신학계에 공공신학적 담론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먼저 세계 공공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더크 스미트와 라인홀드 니버, 맥스 스택하우스, 스탠리 하우어와스 등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의 친 아우로서 "응답적 책임 윤리"를 제창한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이 지니고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와 주제들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이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이 내포하고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까닭은, 공공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그가 공공신학의 뿌리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라인홀드 니버처럼 또는 그보다 더 폭넓게 구체적 조직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니버에 대한 공공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의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리차드 니버의

www.kci.go.kr

신학과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에 대한 조명이 한국개신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갱신과 실천에 기여하고 국내 공공신학적 담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리차드 니버는 1930~60년대 초에 미국에서 활동한 신학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루고 있는 신학적 윤리학적 관심과 주제들은 시공을 뛰어넘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오늘의 한국개신교회에 매우 유익한 공공신학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II. 한국 내 종교 기관의 사회참여 활동

한국 내 불교, 로마 가톨릭교회, 개신교회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을 비교해보면, 개신교회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과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불교계와 로마 가톨릭 교계는, 극소수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문제와 갈등들을 풀고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불교계의 활동

한국불교계는 2009년에는 4대강 사업 반대,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씨의 고공농성 해결, 2012년에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2013년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한국불교계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4)]

www.kci.go.kr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1,012명은 2013년 11월 28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민의를 왜곡한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정부와 여당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신념을 지닌 이들에게 '종북세력'이란 낙인을 찍으며 이념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규탄한다. 이들은 "과거 개발독재 정권이 재현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수행자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하였다.[5)]

조계사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에 저항하며 2013년 12월 25일 경내로 피신한 철도노조 집행부와 세월호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2015년 11월 16일 경내로 피신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보호해 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2. 로마 가톨릭교계의 활동

한국 로마 가톨릭교회는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1974년 9월 26일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의구현사제단"을 결성하고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 관련 사제들이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압을 비판하다가 구속되는 등 고초를 치르는 일이 1970년대 내내 계속됐다. 1990년대

4) 유승무, "고통받는 민중: 한국불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년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하반기 심포지엄, 「고통 받는 민중: 한국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년 11월 28일, 한신대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11-15 참고.

5)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1128141616788 〈2013. 11. 28〉

www.kci.go.kr

후반 이래 정의구현사제단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삼성 비자금 문제 폭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낙천낙선운동, 한미행정협정(SOFA)과 F-X 사업을 비롯한 평화운동 등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불교계와 마찬가지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4대강 사업저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용산참사 문제 해결, 쌍용차문제 해결, 동해안 탈핵,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6)]

로마 가톨릭교회는 2013년 6월 21일을 기점으로 하여 군종교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교구 사제와 수도자들 및 평신도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11월 22일 에는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를 개최하였다.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은 2016년 1월 29일 시위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2015. 11. 14)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져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권 폭력에 항의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7)]

"국가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가 정치의 핵심 의무라고 해도,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언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8)]

2014년 6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응답"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한 교황청 토소 주교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모두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구성원이

---

6) 경동현, "고통 받는 민중, 가톨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년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하반기 심포지엄, 「고통 받는 민중: 한국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년 11월 28일, 한신대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33-39 참고.

7)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6 〈2016.2.1〉

8)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183항.

www.kci.go.kr

다양한 직무와 은사에 따라 온 힘을 다하도록 부름 받았다면서, "특히 사목자들이 환경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 존재의 삶과 전인적 진보와 관련된 의견을 표현할 때, 정치 당국자들은 '간섭'이라는 비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9]

한국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토소 주교는 "교황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10]

3. 개신교회의 자세

박원빈은 "분단이후 한국사회의 첨예한 이념대립의 갈등 속에서 기독지식인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수지식인이라는 커다란 층위에 재편되어 내려오면서 최근 들어 기독교하면 보수우파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의 개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개탄한다.[11]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듯하다.

근래에 김진홍 목사, 서경석 목사, 한기총과 한국 내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 추진된 "신우익 신자유주의 운동"[12]은 폴웰을 비롯한 소수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미국 백인 보수주의 목사들에 의해 주창되어진 "New Right Movement"를 추종하는 것이다. "폴웰은 도덕적다수운동이 사회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국사회의 기득권 세력인

9)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 〈2014. 6. 23〉

10) 같은 글.

11) 박원빈, "기독교사회윤리로서 책임윤리에 대한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108-109.

12) 한국의 뉴라이트가 생성된 시기는 본격적으로 2004년에 자유주의연대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식으로 2005년 11월 7일에 창립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국내의 친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하며, 한국형 신보수주의를 표방한다. http://pann.nate.com/talk/316770931/ 〈2012. 9. 12.〉

www.kci.go.kr

백인을 위한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수인종 그룹을 위한 정의가 아니다."[13] 한 마디로, "신우익운동"의 핵심은 백인 남성들이 지배하던 시절 백인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백인중심의 사회체제를 재확립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해방 · 평등 · 다양화 · 복지 등을 주장하는 기독교인이나 정치세력은 사탄의 세력이나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다. 이것을 추종하는 한국 내 "신우익운동"은 한국개신교회를 정치적으로 더욱 우경화되고 권력 추종적으로 만들었다.

2012년 10월 24일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인 "선진화시민행동"이 보수대연합을 위해 행한 행사인 선진화 전진대회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14]

개신교회는 1970~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소수 기독교인들을 용공분자로 매도했는데, 오늘날에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여전히 빨갱이 또는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권력 다툼으로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타 교단의 활동을 극렬히 비난하였다. 한기총은 2013. 11. 26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와 관련,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발언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제단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5]

2013년 11월 27일 개신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감리교정의평화위원회, 기독자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기

13) ShinHyung Seong, "A Critical Study of American Christian Fundamentalism focussing on the Moral Majority Movement in terms of the Similarity of Korean Christian Fundamentalism", 「기독교사회윤리」 제15집, 2008, p. 104.

14) http://www.nocutnews.co.kr/news/4287264 〈2012. 10. 24〉

15)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politics/201311/h2013112615202421000.htm&ver=v002 〈2013. 11. 26〉

www.kci.go.kr

자회견을 열고 18대 대통령 선거에 다양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개신교계 내의 소수에 의한 일회적인 것이었다. 26일의 한기총에 이어 27일에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 등 3개 기독교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시국 미사에 대해 "반국가적 종북 행위"라며 비난했다.[16]

2014년 5월 20일 한기총 긴급 임원회의에서 부회장인 조광작 목사는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에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목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 말했다.[17]

2014년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었다가 왜곡되고 극우적인 역사관으로 인해 사퇴한 온누리교회 문창극 장로는 설교를 통해 일제 강점기, 남 · 북 분단, 6 · 25 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으며, 제주 4 · 3 민주항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과 폭동이라고 하였다.[18]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2014년 6월 15일 주일 설교를 통해 "문창극 장로만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99%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한다"[19]고 함으로써 한국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사회적 의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전광훈 목사는 또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을 선

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28003009 〈2013. 11. 28.〉

17)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23/14342018.html?cloc=olink|article|default 〈2014. 5. 20〉

18)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611221906299 〈2014. 6. 11〉

19)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13157 〈2014. 6. 15〉

www.kci.go.kr

택한 서울시민들을 향해 "정신이 다 돌았다. …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종북에게 집단 최면 상태로 빠져 들어가 있다"고 했다.[20]

문창극 장로는 2013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강의에서 "언론이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언론학자들이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으므로 강력한 엘리트가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

한기총 · 한교연 · 한장총 · 미래목회포럼, 탈동성애인권기독협의회와 홀리라이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성총회의 올 월드경배와찬양단 등 개신교 단체들은 2014년 서울시 인권조례 채택을 좌절시켰다.[22]

돈암동성결교회는 장로인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회장이 정 · 군 · 관계에 대한 로비자금을 형성하는데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 · 검사, 대기업 중역들이 장로 또는 중직자로 있는 대형교회의 강단에서 정치 · 경제적 부조리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설교는 거의 들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공권력에 쫓기는 사람들이 개신교회로 피신하는 것을 보기도 어렵다.

블랙은 말한다.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시민적 자유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예배나 기타 교회활동에는 적극적이나 에큐메니즘에 반대하고 교회구조와 전통의 변화를 거부한다. 그들은 또한 도덕 · 정치 · 경제에 있어서도 보수주의적이고, 사회정의에 대해 관심이 낮으며, 교회가 사회 · 정치 · 경제적 문제들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23] 사이더는 복음주의자들이 낙태 금지, 안락사

---

20) 같은 글.

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953 〈2014. 6. 12〉

22)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13157 〈2014. 6. 15〉

23) Alan W. Black, "The Impact of Theological Orientation and a Breadth of Perspective

www.kci.go.kr

금지, 가정문제 등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출생 이후의 복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 환경문제, 사회 · 정치적인 문제 등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24] 블랙과 사이더의 서술은 마치 한국개신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는 사회 전 분야에 공공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개신교회는 지금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듯하다. 공공신학적 담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고도 유익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공공신학의 주요주제: 더크 스미트, 라인홀드 니버, 맥스 스택하우스, 스탠리 하우어와스

스미트는 미국, 영국, 독일, 아프리카에서의 공공신학 발전과정과 핵심주제들에 대해서 잘 소개한다. 공공신학은 공적 · 윤리적 이슈들에 관여하고 해결을 모색함, 교회 · 학계 · 사회 세 영역의 이슈들을 공유하고 유익한 담론 제공,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및 요구의 수용, 세계화 상황 속에서의 경제 부정의와 환경파괴에 대한 공동대처, 주변화와 소외극복, 정의와 평등 평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분노의 땅 남아프리카의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억압적 · 차별적 · 착취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종적 정치 · 경제적 정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25]

---

on Church Member's Attitudes and Behaviors," *JSSR* 24 (March), 1985, 87-100; 재인용, 김희수, 앞의 책, 80.

24) Ronald J. Sider,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19; 재인용, 이장형, "기독교의 정치참여 방법론과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2008, 82.

25) 공공신학은 1960년대 벨라(Robert N. Bellah)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 독일, 영국, 아프리카 등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미

www.kci.go.kr

국내에 주로 소개된 스택하우스 등은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공공신학을 발전시켰다. 기독교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주장한 라인홀드 니버의 윤리학적 특성은 (1) 사회 ·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신학적 분석, (2) 성서적 사랑의 실현과 관련하여 초월적 정의에 근사적인 정의의 실현 가능성, (3) 인간의 죄성과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정의실현을 위한 공권력 사용의 필요성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26] 라스무센, 마티, 그리고 스택하우스 등은 라인홀드 니버가 공공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를 공공신학자라고 본다.[27]

국에서는 마티(Martin Marty),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 벤(Robert Benne), 티만(Ronald Thiemann) 등이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킹(Martin Luther King Jr.),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카이퍼(Abraham Kuyper), 라우쉔부쉬(Walter Rauschenbusch) 등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트레이시(David Tracy)가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의 신학과 철학을 토대로 공공신학을 발전시켰으며, 독일에서는 후버(Wolfgang Huber)가 칸트(Immanuel Kant),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등의 철학과 신학을 토대로 해서, 영국에서는 스토라르(William Storrar)와 아더톤(J. Atherton) 등이 하버마스와 페미니스트들의 논리를 토대로 해서 공공신학을 발전시켰다. 아프리카에서는 스미트(Dirk J. Smit), 꾸프만(Nico Koopman), 말루레케(Tinyiko Maluleke), 그루치(John de Gruchy) 등이 공공신학을 발전시켰다. Dirk J. Smit, "The Paradigm of Public Theology — Origins and Development," Heinrich Bedford-Strohm, Florian Höhne, Tobias Reitmeier, eds.,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Proceedings from the Bamberg Conference 23.-25.06.2011(Berlin:: LIT Verlag Dr. W. Hopf, 2013), 11-24; 최경환, "공공신학의 기원, 특징, 최근의 이슈들",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제14차 정기논문발표회, 『한국교회와 신앙의 공공성』, 2014년 11월 22일,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19 참고.

26)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pp. 908-915; 재인용,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2008, 107.

27) Larry Rasmussen, ed., "Introduction", in ***Reinhold Niebuhr, The Theologian of Public Life***(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1), 5; Tomoaki Fukai, "Theology of Japan as Public Theology", in ***A Theology of Japan: Origins and Task in the Age of Globalization***(Ageo, Saitama: Seigakuin Univ. Press, 2005), 91; Max. L. Stackhouse,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www.kci.go.kr

공공신학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인간의 죄성과 집단 이기주의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혁을 중요시 한다.[28] 스택하우스는 사회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라인홀드 니버의 윤리적 지평을 확장하여 정치와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까지 확대시켰다.[29]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이 기업 및 경제윤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도덕적 자본(mor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가 도덕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0]

스택하우스는 교회가 현대문화를 악으로 간주하고 경건성과 도덕적 순수성만을 주장하는 소종파주의와 배타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시민사회와 현대문화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한다.[31]

하우어와스는 교회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을 실천적으로 공유해 온 공동체"[32]라고 하며 성례(sacraments)가 집행되고 말씀이 선포되며 올바른 삶(upright lives)

(경기: 북코리아, 2008), 15.

28)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Univ. Press of America, 1991), intro. ix;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116; Reinhold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Merdian Books, 1956), 139-198.

29) Max L. Stackhouse,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in Max L.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11, 16;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113.

30) 문시영, 위의 글, 214.

31) Max L. Stackhouse,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16; 문시영,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212; Max L. Stackhouse, "Joining the discussion," in Max L.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127;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111; 스택하우스는 베드로전서 2:9절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수행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한다. Max L. Stackhouse, 「소명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경기: 북코리아, 2007), 9-27.

32)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Durham, NC: Duke Univ. Press, 1988), 102; 문시영,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217.

www.kci.go.kr

의 모습이 있는 곳임을 상기시킨다.[33] 올바른 삶이란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서 시민사회가 본받고 따를만한 윤리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34] 교회는 사회에 윤리를 제안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스스로가 사회윤리와 사회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35]

이상에서 스미트, 니버, 스택하우스, 하우어와스 등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이 폭넓게 다루고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V.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

본 장은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 전반에 대한 소개나 비평이 아니라 그의 신학과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들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36] 리차드 니버가 다루고 있는 신학적 윤리학적 주제들은 교회의 본질과 역할,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직결된 것들이며 공공신학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다. 우리는 한국 내 공공신학 담론 심화를 위해서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이 재조명되어야할 필요성과, 그가 1930~60년대 초 미국에서 활동한 신학자이었음에도 불

33)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diana: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107;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216.

34) Stanley Hauerwas, 위의 책, 100; 문시영,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215.

35)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61; 문시영, 같은 글.

36)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희수, 『기독교윤리학』(서울: 동문선, 2011), 221-268.

www.kci.go.kr

구하고 현재 한국개신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회복, 그리고 실천을 위해 유익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은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보고 있는바 근원적으로 공공신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차드 니버의 윤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응답적 책임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을 "responsible self"로 규정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응답하는 책임적 존재"와 "하나님 및 이웃과의 지속적인 대화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책임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웃의 필요에 적절하게 응답할 때, 즉 소통과 책임을 다할 때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된다고 본다.[37]

리차드 니버는 책임적 성격을 교회에도 적용한다. 그가 처음으로 그의 응답적 책임윤리의 뼈대를 잡은 것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논한 논문에서였다.[38] 그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존재하는 모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한다.[39]

리차드 니버는 "인류의 대표로서 그리고 개척자로서 교회는, 그것의 사고와 조직과 행동에 있어서 인종과 계층과 국가이익 등에 의해서 분

37) 김희수, 위의 책, 221-222.

38) H.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or society," in *The Gospel, the Church and the World,* ed. by K. S. Latourett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6), 193.

39) H. Richard Niebuhr,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 with supplementary essay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0), 49-63.

www.kci.go.kr

열되지 않은 세계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40]

리차드 니버는 교회가 사도 · 목회자 ·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사도로서 혁명적 복음을 모든 인류와 집단에게 선포해야만 한다. 교회는 목회자로서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만드는 사회의 조직적 제도적인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한다. 교회는 또한 사회를 회개시키고 개혁하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먼저 그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타락한 관습, 경제정책, 정치적 관점, 재산의 소유, 인간관계 등을 개혁함으로써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일반 사회의 타락한 관습, 경제정책, 정치적 관점, 재산의 소유, 인간관계 등을 획기적인 개혁으로 인도하는 개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1]

2. 상황 · 해석 · 사회적 연대성

리차드 니버는 윤리학에 있어서 사회 상황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매우 중시한다. 그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도덕 공동체의 생활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와 그 생활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총체적인 상황 이해와 도덕적 의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40) Niebuhr,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Reflections on the Aims of Theological Educa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142.

41) Niebuhr,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or society," 111-33; *The Purpose of the Church*, 126-32.

www.kci.go.kr

적절한 도덕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42]

리차드 니버는 올바른 응답, 즉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해석(interpretation),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 책임(accountability), 응답(response) 등 네 가지 핵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공통된 목적의식의 공유와 서로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에 근거한 사회적 연대성, 일관성과 지속성을 견지하는 책임감,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거한 올바른 응답적인 행동을 강조한다.[43]

3. 죄와 구조적 구원

리차드 니버는 개인, 단체,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실존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강조한다. 그는 죄를 종교적 차원의 죄와 윤리적 차원의 악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한다.[44] 그는 종교적인 죄를 우상숭배, 즉 거짓 신들(권력, 민족, 물질, 명예, 종교 등)에 대한 숭배와 맹목적 헌신으로 이해한다.[45] 그는 윤리적 악은 종교적 타락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하며, 인간 · 동물 · 자연에 대한 살육 · 억압 · 착취 · 파괴 등 잔혹행위, 비정상적인 소유욕, 도착적인 성적 가해 행위, 신의 창조물들과 그 아름다움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든다.[46]

리차드 니버는 구원 역시 종교적 · 윤리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

---

42) H. Richard Niebuhr, "War as the judgment of God," in *Christian Century* 59 (1942): 633; "The grace of doing nothing," in *The Christian Century* 49 (1932): 378-80; "A communication," in *The Christian Century* 49 (1932): 447.

43) H.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New York: Harper & Row, 1963), 61-65, 69-89.

44) H. Richard Niebuhr, "Man the sinner," *The Journal of Religion*, XV, July(1935), 276-7.

45) 위의 글, 273.

46) 위의 글, 279.

www.kci.go.kr

하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믿음의 회복과 윤리적 악으로부터의 돌이킴을 총체적으로 이해했다. 구원은 종교적 · 의식적 · 개인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현실 사회의 구조적 삶과 관계들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47]

그러나 한국개신교회는 주로 개인적 · 종교적 · 의식적 차원의 구원을 주장하며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인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개입을 거부하거나 비판한다. 이것은 비성서적이다. 교회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과 사회적 차원의 구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반 소종파주의(anti-sectarianism)와 우주공동체주의(universalism)

소종파주의와 폐쇄성으로부터의 해방은 리차드 니버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리차드 니버는 책임을 다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가 스스로를 숭배하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강화적(self-aggrandizing)"이 되는 것과 "자기 방어적(self-defensive)"으로 되는데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8]

리차드 니버는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되는 두 종류의 병적인 신앙, 즉 "단일신 숭배주의(henotheism)"와 "다신 숭배주의(polytheism)"에 대해 말하는데, 단일신 숭배주의는 가족, 국가, 교회 같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형성하게 만들며 같은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도록 만든다.[49] 교회가 자기중심적, 자기숭배적

47) 위의 글, 277; Niebuhr, ***Responsible Self***, 139, 142-5; ***Radical Monotheism***, 122-6; H. Richard Niebuhr, ***Meaning of Revelation*** (1941; first paperback ed., New York: Macmillan Co., 1960), 59-66; 김희수, 『기독교윤리학』, 227.

48) Niebuhr, ***Radical Monotheism,*** 49-63.

49) 위의 책, 24-31, 35-37, 56-60, 75-76;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98-100, 106,

www.kci.go.kr

인 조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리차드 니버는 이에서 더 나아가 반소종파주의나 세계공동체주의(globalism)보다 더 넓은 차원의 우주공동체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윤리적 책임의 범주를 인간과 지구를 뛰어넘어 무생물과 우주에로까지 확장시킨다.[50] "내가 한 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응답할 때," 리차드 니버는 말한다, "나는 인간과 인간이하의 개체들과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들 모두를 나의 동료들로 …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적 사회 속에 포함시킨다."[51]

리차드 니버는 공공신학이 그 관심을 인간중심 지구중심의 사고를 초월하여 우주에로까지 넓혀가야 함을 제시한다. 인간의 삶의 무대는 이미 우주공간으로 확대되었다.

5. 영원한 개혁자

리차드 니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안주하고 있는 사상과 신앙체계를 깨뜨리고 개혁하는 영원한 개혁자이시다.[52]

리차드 니버는 교회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는데[53], 첫 번

121-23, 137-41; "Man the sinner," 278-80. 다신 숭배주의는 쾌락 · 부 · 명예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동시에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의 중심축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50) Niebuhr, *Radical Monotheism*, 122-6; *Responsible Self*, 142-5; *Meaning of Revelation*, 59-66.

51) Niebuhr, *The Purpose of the Church*, 38.

52) Niebuhr, *Meaning of Revelation*, 138; 재인용, 김희수, 『기독교윤리학』, 231-232.

53)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5): Christ against culture(문화에 적대적인 그리스도), The Christ of culture(문화수용적인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문화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문화 개혁자로서의 그리스도).

www.kci.go.kr

째, "문화에 적대적인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의 입장을 취하는 교회는 예수가 세상을 적대시하고 대결하였으며,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질서를 세웠다고 본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윤리를 미워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와 윤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4]

두 번째는 "문화 수용적인 그리스도(The Christ of Culture)" 유형의 교회이다. 이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였던 독일 국민들과 교회처럼, 현재의 사회구조와 정치질서, 문화야말로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라고 강조함으로써 사회주도세력의 가치관과 문화와 법을 예찬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 윤리라고 본다.[55]

리차드 니버는 이러한 교회와 대조적으로 문화 개혁자로서의 교회를 주장한다.[56]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를 포함한 인간 문화의 전 영역 역시 죄로 깊이 물들어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며 타락한 인간 문화를 개혁하는 역할을 감당해야한다고 주장한다.[57]

6. 적극적 사회참여, 목적과 방법

리차드 니버는 전쟁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정의와 평화와 화합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무고한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해자(그 가해자가 자기 자신의 국민이거나 국가인 경우라도)에게 대항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기

54) 위의 책, 48.
55) 같은 책.
56) 위의 책, 190-229.
57) 위의 책, 191.

www.kci.go.kr

적인 방관 역시 이기적인 개입처럼 해로운 것임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58]

그러나 그 개입방법에 있어서는 교회가 일반 사회운동 단체와는 다른 복음적 공동체임을 명심하고 그에 적합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리차드 니버는 이에 대한 유익한 방안을 제시한다.

리차드 니버는 해결을 위한 우리의 태도와 방법이 악마에 대한 성자의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이 다른 죄인들에게 가하는" 제재임을 명심할 것,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 치료적인 것일 것,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보존적인 것일 것, 화해를 위한 전략일 것을 강조한다.[59] 이렇게 할 때 자기 고백적이며, 은혜롭고, 책임 있는 세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수많은 비극들 가운데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질서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60] 보복적 폭력적 방법은 피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리차드 니버는 공공신학의 토대가 되는 주제들을 다양하고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국개신교회에 매우 유익한 신학적 · 윤리학적 가이드라인들과 실천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58) Niebuhr, "War as the judgment of God," 630-33, 632.
59) Niebuhr, "Man the sinner," 280.
60) Niebuhr, "War as the judgment of God," 631-632.

www.kci.go.kr

V. 결론: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의식 재인식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안

앞에서 고찰해본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를 근거로 하여 한국 개신교회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의식 재인식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적 고결성 회복: 사회를 회개시키고 개혁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의 타락한 윤리 도덕적 행위, 관습, 정치 · 경제관, 재산 소유, 인간관계 등을 먼저 회개하고 개혁함으로써 도덕적 고결성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사회의 모범적 모델의 위치를 회복해야만 한다.

둘째,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의 총체적 파악과 실천: 성경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기쁜 소식)의 핵심은 사랑, 정의, 평등, 평화, 회개, 용서, 구원, 치유, 화해 등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적 의례를 수행하며, 내부의 교인들을 돌보고, 개인 전도를 하는 것만이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복음이 정치 · 경제 ·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복음적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사도 · 목회자 · 개척자로서의 소명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이분법적 사고와 폐쇄성의 극복: 교회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지배세력의 통치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와 사회를 성과 속, 선택 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교회 밖을 적대시 하는 것 역시 안 된다. 교회의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의 내부적 잔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종교 · 인종 · 성을 초월할 뿐만 아니

www.kci.go.kr

라 자연세계와 우주까지도 포함하여 모두를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과 자녀들로 간주하고 포용하며 전체 구성원들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타종교 및 교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이념적 다양성 인정,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포용과 배려, 환경파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한다.

넷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참여: 정치 · 경제 · 인권 등 사회문제는 교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숫자적 물질적 성장을 위해 개인전도에만 집중하며, 사회의 고통과 갈등에 눈을 감는 것은 구조적 조직적 사회악과 지배세력의 불공정한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 역시 이미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회는 이러한 태도를 탈피하고 오늘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공공선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개인 구원과 사회구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임성빈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조되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실천 없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언만 반복한다면 교회가 스스로를 세상 유혹과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61] 한국 개신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에 대한 조명이 한국

61) 임성빈, "후기세속화시대에서 공공신학하기," 장로회신학대 2015 한 · 중 · 미 국제학술대회, 「각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공공신학 하기」, 2015년 4월 9일, 장로회신학대 세계교회협력센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23074&code=61221111&cp=du〈2015. 4. 9〉

www.kci.go.kr

의 공공신학적 담론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한국개신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회복에 기여하며, 한국개신교회 재 부흥의 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에 대한 공공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경동현. “고통 받는 민중, 가톨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년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하반기 심포지엄,「고통 받는 민중: 한국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2013년 11월 28일, 한신대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고범서.『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교황 바오로 6세.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조직 확정에 관한 자의 교서「정의와 평화」. 197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기구 개편에 관한 교황령「착한 목자」. 1988.

교황 프란치스코.「복음의 기쁨」.

김희수. “A Study on H. Richard Niebuhr’s Theology and Ethics”.「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1집. 1999. 112-148.

_____.『기독교윤리학』. 서울: 동문선, 2011.

_____.『기독교사회윤리』. 서울: 동문선, 2011.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16집. 2008. 99-121.

_____.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18집. 2009. 199-227.

박원빈. “기독교사회윤리로서 책임윤리에 대한 성찰”,「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18집. 2009. 105-126.

유승무. “고통받는 민중: 한국불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년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하반기 심포지엄,「고통 받는 민중: 한국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2013년 11월 28일, 한신대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이장형. “기독교의 정치참여 방법론과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16집, 2008. 77-98.

임성빈. “후기세속화시대에서 공공신학하기,” 장로회신학대 2015 한 · 중 · 미 국제학술대회,「각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공공신학 하기」, 2015년 4월 9일, 장로회신학대 세계교회협력센터.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사목헌장」.

최 환, “공공신학의 기원, 특징, 최근의 이슈들”,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제14차 정

www.kci.go.kr

기논문발표회, 「한국교회와 신앙의 공공성」, 2014년 11월 22일, 백주년기념 교회 사회봉사관.

Hauerwas, Stanley,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Seong, ShinHyung. "A Critical Study of American Christian Fundamentalism focussing on the Moral Majority Movement in terms of the Similarity of Korean Christian Fundamentalism". 「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15집, 2008. 87-107.

Stackhouse, Max. L. "소명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경기: 북코리아, 2007.

_____.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경기: 북코리아, 2008.

Black, Alan W. "The impact of theological orientation and a breadth of perspective on church member's attitudes and behaviors," in *JSSR* 24 (March), 1985.

Fukai, Tomoaki. 'Theology of Japan as public theology' in *A Theology of Japan: Origins and Task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geo, Saitama: Seigakuin Univ. Press, 2005.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diana: Univ. of Notre Dame Press, 1983.

_____.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Duke Univ. Press, 1988.

Niebuhr, H. Richard. "A communication," in *The Christian Century* 49 (1932).

_____. "The grace of doing nothing," in *The Christian Century* 49 (1932).

_____. "Man the sinner," in *The Journal of Religion* XV July (1935).

_____. *Meaning of Revelation*. (1941), first paperback ed., New York: Macmillan Co., 1960.

_____. "War as the judgment of God," *Christian Century* 59, (1942).

_____.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or society," in *The Gospel, the Church and the World*, ed. by K. S. Latourett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6.

_____.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Reflections on the Aims*

www.kci.go.kr

of Theological Educa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_____. *The Responsible Self*.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63.

_____.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 with supplementary essay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0.

_____.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5.

Niebuhr, Reinhold.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Living Age Books. New York: Meridian Books, 1956.

Rasmussen, Larry, ed.. *Reinhold Niebuhr, The Theologian of Public Lif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1.

Sider, Ronald J.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Smit, Dirk J. "The paradigm of public theology – origins and development," Heinrich Bedford-Strohm, Florian Höhne, Tobias Reitmeier, eds.,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Proceedings from the Bamberg Conference 23.-25.06.2011. Berlin:: LIT Verlag Dr. W. Hopf, 2013.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D.C.: Univ. Press of America, 1991.

_____.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in Max. L.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_____. "Joining the discussion," in Max. L.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논문투고일: 2016년 2월 23일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09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에 대해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의 신학과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를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국내 공공신학 담론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 개신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회복 및 실천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 개신교회는 성장을 위해 개인전도, 각종 예배와 기도회, 부흥회, 헌금, 교인들 간의 친목도모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물질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 시민사회와의 소통 단절, 보수우경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역성장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되고 갱신되어 이 사회에 정의와 화평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 공공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더크 스미트와 라인홀드 니버, 맥스 스택하우스, 스탠리 하우어와스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응답적 책임 윤리”를 제창한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를 조명하며, 이를 통해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회복, 그리고 실천을 위한 신학적 윤리학적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한다.

주제어: 리차드 니버, 공공신학, 사회정의, 사회적 책임, 응답적 책임윤리, 사회적 연대성

www.kci.go.kr